

몇권 책으로 남은 서른해 書生의 삶

하염없이 이어진 책과의 질기고 오랜 인연

박제천
시인

요즘에는 보통사람들의 자서전 만들기가 인기라 한다. 사람의 삶이란 걸보기에는 대충 비슷해 보이지만 저마다 다른 삶을 살게 마련이니, 스스로의 삶을 제 손으로 마무리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세밑의 문턱에 서서, 이제는 나도 자서전을 만들 나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니, 아직은 분수에 넘치는 것만 같아 고개를 흔들고 만다. 그보다는 오히려 문자 한자로 내 삶을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떤 글자일까 탄 궁리에 빠지게 된다.

어언 30년을 글쓰기에 매달려 왔으니 文이라 할까, 어려서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하도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쓰다보니 詩生의 30년이 흐른 것이다. 허나 그도저도 마음에 차지 않아, 남들은 대체 어떻게 살며 무엇을 생각하고 얼마나 아는지 뒤적여보다 보니 책읽기가 몸에 밴 書生의 30년이 차고 넘었다. 보다 나이들어 생업의 빌미로 잡은 것이 책만들기니, 책읽기를 겸할 수 있는 소득이 많아 끝내 손을 놓지 못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 세가지를 합쳐 文字書라 한다. 「說文解字」머리에 보면,

“황제의 史官인 창힐이 처음에 書契를 만드는데 類에 의해서 象形한 것은 文이라 하였다. 그뒤에 形과 聲으로 아울러진 것은 字라 하고, 竹帛에다가 표착한 것은 書라 하였다.”

고 한다. 풀어 말하면 창힐이 매의 발자국을 보고서, 그 자국의 뜻을 헤아리다가 하늘 나는 짐승이 땅에 그 무엇을 아로새기는 뜻은 곧 하늘의 말씀이라는 데 생각이 미침으로써 ‘문’을 만들고, 나아가 천지만물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모양과 소리를 아우르니 ‘자’가 되어 문자의 탄생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문자를 대나무나 비단에 표시해놓은 것을 ‘서’라 하니, 그것이 바로 고대의 책인 셈이다.

이로보면 문자서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것이니, 서생의 뜻이 그에 가름되는 까닭이다.

동양의 문자는 이렇듯 하늘의 뜻, 땅의 뜻, 그 사이에 사는 유정하고 무정한 모든 존재의 뜻을 새김이니, 그 방법을 대개 여섯가지로

나눈다. 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註, 假借가 그것이다.

상형문자는 널리 알려지듯이 日月과 같이

글쓰기와 읽기, 그리고 책만들기로 보내온 삶이지만, 허술하게 넘긴 대목이 더 많고 가닥을 따지다가 뭉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만큼 지나친 대목, 버려둔 뭉치를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한다.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더 적은 나이에, 그것이 곧 내일을 사는 나의 뜻이 아닌가.

모양을 본뜬 것이며, 형체가 없는 上下와 같은 글자는 지사문자라 한다. 상형과 지사를 기본으로 하여 보다 복잡한 뜻을 두 글자 이상 합해 만든 것이 회의문자와 형성문자이다. 회의는 뜻을 중심으로 하고, 형성은 소리나 모양에 역점을 둔 것이 다를 뿐이다. 전주문자는 문자의 사용이 오래되다 보면 다른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니, 惡(악)의 나뭇이 증오의 ‘惡’(오)처럼 미움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차문자의 경우는 마땅한 글자가 없으면 음이 같은 문자, 뜻이 같은 문자를 빌려다 쓰는 것이다.

문자서의 이야기가 이리 장황한 것은 30년의 서생 생활을 겪어나가다 보니, 뻗어나가는 잔가지에 신경을 쓸 뿐, 그 근본을 오히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의 근본을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말만 서생이지, 문자서의 내력조차 아는 이가 그리 흔치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이 문자서의 분류를 經史子集의 넷으로 크게 나눈다. 이 분류는 또한 책의 등급이기도 하니 최고의 책인 경에 속하는 것이 서경·시경·역경 등이며, 사는 왕조의 역사다. 자는 이른바 ‘子’자가 들어가는 제자백가의 책이고, 집은 문집을 가리킨다. 오늘의 책들은 거개가 분류상으로는 집에 해당되지만, 집의 본뜻은 전집을 가리킨다. 선비의 한 생애가 끝나, 비로소 문생들이

스승의 저작을 정리해 한 집을 묶어내는 것이니 글의 마지막이 이로 가려지는 것이다.

얼핏 따져보니 30년 서생의 결과가 열몇권 남짓의 책으로 남아 있다. 이것들이 장차 집으로 남을 것인가, 아닌가... 한번 여기에 빠지면 별 생각이 다 돌아난다. 이럴때는 우스갯소리 하나를 떠올려서 나도 웃고 말아야 한다.

애기인즉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은 나이들어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고승소리를 듣는 스님이기에 남다른 격정이 있는 것이다. 불가에서 스님이 죽은 뒤 다비를 하는데 이때, 사리수를 따지는 신도들의 부질없는 장난이 예나 이제나 버릇처럼 되어 있다. 때문에 스님은 자기가 죽은 뒤 사리가 나오지 않으면 제자 스님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을까, 전전공공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더 적을

것만은 틀림없는 나이이지만, 아직은 그에 붙들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일은 아니다. 하염없이 한해를 보내는 세밑이지만, 오늘의 부끄러움을 씻어버릴 내일은 충분히 남아 있다.

글쓰기와 읽기, 그리고 책만들기로 보내온 삶이지만, 허술하게 넘긴 대목이 더 많고, 가닥을 따지다가 뭉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만큼, 그 지나친 대목, 버려둔 뭉치를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한다. 그것이 곧 내일을 사는 나의 뜻이 아닌가.

책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 이즈음, 남에게 읽히기보다, 스스로에게 읽히고 싶어하는 보통사람들의 자서전이 인기가 있다는 것도 그런 뜻으로 새겨야 하지 않을까.

